

# 공예사 방법론의 성찰과 다문화적 상상력

최공호\*

- I. 머리말
- II. 문화 인식과 다문화주의
- III. 공예의 문화적 다양성과 시원적 보편성
- IV. 맺음말 - 다문화적 공예사 인식의 지향

## I. 머리말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도 이미 오래다.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들어와 살며, 그들이 전체 인구의 3.9%를 점유하는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우리 사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sup>1</sup> 단일민족의 전통적 정체성론의 토대 위에 구축된 한국사회 전반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한국은 다문화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몸은 세계시민이 되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강고한 인식의 관성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피부색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은 물론, 심지어 어린 학생들조차 혼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sup>1</sup> 이 수치는 일 년 전의 통계이며,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동녘, 2008), p. 4 및 <연합뉴스> 2016. 7. 27 참조.

아를 놀림감으로 삼는 일이 다반사다. 차이를 그르게 보는 편견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에게 일깨운다.

그 일차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는 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관되게 표방해온 단문화주의의 이면이 가감 없이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학의 학술활동이 줄곧 고유성과 특수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해 왔으며, 문화정책도 한국적 정체성을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처럼 인식의 불균형이 심화된 결과가 한국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데서 비롯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를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어느 한 쪽이 약화되면 전체 인식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견고한 문화적 편견을 허물고 깨어진 특수와 보편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바깥을 향한 시선을 돌려 '우리 안의 세계'를 살피야 할 당위성이 여기서 비롯한다. 자국의 고유성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해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합하는 문화 담론이 바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이론이다.

다문화주의는 본디 근대기의 빈번해진 인구 이동과 국경 변동에 따라 발생한 문화접변 현상에 대응한 정책용어에서 비롯하였다. 근대 이후의 국제관계가 여러 형태의 문화 교섭과 혼효, 디아스포라 등의 문제를 파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된 소수민족의 문화를 조명하는 데에 집중된 다문화주의의 노력은 인식의 성숙에 정합하는 자연스런 귀결이다. 마이너리티를 중심문화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초기의 연구목표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다문화주의 담론이 2000년대에 들어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영문학과 구비문학 등 몇몇 분야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성과는 아직 문화적 마이너리티를 살피는 단계에 있다.<sup>2</sup> 그러나 국외 학계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분야에 따라 전향적인 방법론으로 진보를 거듭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문화주의의 담론은 기존 인식의 지평을 넘어 접근방법과 경로를 과감하게 확장하고 있다. 무너진 균형의 회복과 보편성의 가치를 위한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다문화주의의 논점은, 중심과 주변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것이 약자의 문화에

<sup>2</sup> 국내에 다문화주의 이론은 주로 영문학과 같은 문학 분야와 사회학, 구비문학계에서 주로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야마다 인식차가 적지 않다. 영문학에서는 소외된 소수문학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회학은 혼종문화론이나 다문화가정,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회적 현안 문제에, 그리고 구비문학계에서는 국문학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구비문학의 처지를 다문화의 소수문화 관심으로 치환하여 대등한 가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회는 2008년 6월호를 '구비문학 속의 다문화 현상'을 기획 주제로 삼아 6편의 논문을 실는 등 한국학 분야에서 다문화주의의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의 구비설화에 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밝히는데 집중되었다.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특수성과 차이를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이상 그 궁극은 분열과 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모든 문화적 성취를 대등하게 놓고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문화의 참다운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선의 실현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된다. 다문화주의 연구방법론에서 가장 주목할 핵심은,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는 대안과 더불어 '차이'보다 '같음'을 드러내어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려는 노력이다.

단문화적 인식의 관성과 연구방법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연구환경이기에 이 관점이 공예사에 더욱 유효하다고 본다. 공예는 우리 삶의 여러 층위 가운데 가장 넓은 범주의 문화 전형을 구성한다. 모든 인종에게 제각기의 방식으로 존재해온 터라 대표적인 시공간의 보편성을 지닌 것도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평소, '작은 기물 하나가 우리 삶 전체와 거미줄처럼 연결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다문화적 관점으로 풀이하면, 하나의 기물 형식에는 교류 이전의 인류 보편적 공통분모와, 다채로운 외래문화의 요소가 함께 응축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보편적 가치의 지향과 수렴되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에 주목하면 형식의 고유성을 찾는 기존 방법의 내면에서 단문화주의를 향한 암묵적 함의가 쉽게 간파된다.

필자는 다문화주의의 복잡한 이론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차이보다 같음의 가치를 확장하는데 주력하는 다문화주의의 지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예사의 기형을 분석하는데 접목하면 인류 보편의 지혜에 기초한 시원적 보편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원적 보편성은 문화교섭 이전의 본능적 지혜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이 관점이 향후 새로운 공예사의 지형을 확장하는데 일부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넘어 민족과 지역을 포월하는 문화적 성취가 모두 한 겹 건어내고 들여다보면 내부에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편적 특질을 찾아내는 작업은, 자국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 차이와 대립의 강화에 동원되어온 단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도 그 자체로서 유의미하다고 믿는다.<sup>3</sup> 다문화주의의 담론은 미술사에서 아직 낯설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갈래를 간략히 소개하고, 큰 틀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시론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sup>3</sup> 연구방법론은 근대학문을 도입한 한국과 같은 제3세계의 학계에서는 학문적 성과보다 더 주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술사의 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고, 연구자도 괄목하게 성장한 지금 세삼스레 방법론을 소개하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사에서 아직도 공예사에 정합하는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다.

## II. 문화 인식과 다문화주의

### 1. 단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대척점에 있는 단문화적 인식(monoculturalism)의 특성에 대해 피터 코스(Peter Caws)는, “완성(completeness)과 일관성(consistency)이 단문화적 이상”이라고 규정하였다.<sup>4</sup> 여기서의 ‘완성’은 마침표와 같은 의미로서, 특정한 문화의 형태를 하나의 틀에 넣어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시공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문화의 유기적 속성을 부정하고, 강고한 보수적 관성에 얽매어 고정대로 보는 관점이며, 한 발 나아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굳게 믿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관성’ 또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읽힌다. 예측 가능한 패턴, 뻔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바로 단문화적 인식틀 내에서의 일관성의 개념이다. 즉 다르거나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 고정관념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폐쇄형 문화를 가진 민족일수록 여기에 스스로를 가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단문화주의는 자국 중심의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기반으로 삼는 특징이 있으며, 연구 관점에서 문화절대주의에 기초한 고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한다. 단일민족 사상에 기반을 둔 기존 한국학의 관점은 전형적인 단문화주의에 속한다. 정체성 담론이나 전통론 등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며, 최남선에 의해 주창된 ‘백의민족설’과 같은 이론이 대표적인 단문화주의의 연구결과에 해당한다.<sup>5</sup> 흰옷을 빛과 결부시켜 해석한 견해가 다분히 단일민족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전통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그 너머의 저간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순혈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학계는 이미 반만 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주장이 성립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시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인접국과의 역사적 접점이 빈번했던 동아시아가 각기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 태도에 강고한 입장을 보인다. 편향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는 국가 간의 대립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치적인 주나 주장이 내적으로는 그것을 받쳐주는 이론체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 역사학

<sup>4</sup> Peter Caws, “Identity: Cultural, Transcultural, and Multicultural,” *Multiculturalism*, Ed. David Theo Goldberg, Blackwell, (1995), p. 382.

<sup>5</sup> 최공호, 「소백색 한복의 정체성과 근대의 백색담론」,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전통문화연구소, 2010), pp. 252-281 참조.

이 학술활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론을 통해 오랫동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대 학문의 출발 당시에 주력했던 관점이 세계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통 가능한 담론으로서의 유효성을 낮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구축하고 이끌어갈 이론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다문화주의의 인식들은 매우 유연하고 자유롭다. 피터 코스가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는” 특질에서 찾으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sup>6</sup>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성격을 현재까지 개진된 견해에 묶어 두려는 것도 확장성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라고 본 것이다. 테렌스 터너(Terence Turner)는 한 발 나아가, “일반적인 다문화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 창조 능력에 힘을 불어 넣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sup>7</sup> 인구 이동이나 국제교류 등 단편적인 시무를 넘어서 다문화적 상상력이 국제사회의 지성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다문화주의의 정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경우. 둘째, 학문적 담론 의제로서의 다문화주의라는 시각. 셋째, 사회운동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주의. 마지막으로 국가의 소수자정책을 지칭하는 것이다.<sup>8</sup>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개인별로 다 다르게 쓴다.’고 할 정도로 아직은 일정한 틀이 형성되지 않았다.<sup>9</sup> 사회 제도와 학계에서 다문화주의를 여러 형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의 법률과 제도의 범주에서는 노동력이나 혼인 등의 이유로 들어온 이민자의 정착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2세대의 교육 및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지는 문화적 소외의 구조와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문화교류사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인식하는 경향이다. 근대 이전의 시대마다 대외교류와 교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문화의 전파와 정착과정을 연구한 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연구는 ‘다문화’라는 특정한 주제에 선별적으로 대응하

<sup>6</sup> Caws, 앞의 논문, p.382.

<sup>7</sup> Terence Turner, “Anthropology and Multiculturalism: What Is Anthropology that Multiculturalists Should Be Mindful of It?,” *Multiculturalism*, edited by David Theo Goldberg (Oxford: Blackwell, 1995), p.424.

<sup>8</sup> 여기에 관해서는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한울, 2007); 박경하 외, 『한국 역사 속의 문화적 다양성』(경진출판, 2016), p. 25.

<sup>9</sup>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제 26집(2008.6), p. 102.

지는 않지만, 역사상의 구현에 있어 영향을 끼쳐왔던 다양한 문화상의 재현 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0</sup> 고대 한반도의 문화적 원류로서 중국을 의식하는 경향과 더불어, 국제교류의 주요 루트였던 실크로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역 문물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sup>11</sup> 근현대에 들어서는 서구문물의 수용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한 서양인이나 기독교의 전파와 문화충돌의 의제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논제들은 엄밀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연구라기보다는 문화교섭사의 성격에 더 가깝다.

다문화와 연관된 문화이론은 여러 인종을 통합할 필요가 있던 구미에서 식민지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동화(melting pot)'의 개념을 거쳐 국제사회의 문화적 현안을 다루기 위한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 등으로 갈래가 나뉘어 전개되었다. 근대 초기의 식민주의에 결부된 '동화'의 개념은 단순한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이민족의 문화를 주류문화에 수렴되게 녹여내는 형태를 일컫는다. 일제강점기의 내선일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다원주의는 본디 한 국가 내에서의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주류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인류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창조적 원천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적용되면서 다소의 확장성을 지닌 이론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2001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31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와 관련된 인류의 유산이 창조되고 상품으로 유통되는 변화된 세계의 현실적 수요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의적 정합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론적인 이론의 단계를 넘어서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섞일 때 파생되는 크고 작은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를 넘어 각기의 문화적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보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과 해석에도 여러 갈래의 견해가 존재하고, 아직도 한 가지로 통합된 개념이 없어 관점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크게 다른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주의가 식민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 담론으로서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과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sup>10</sup> 박경하 외, 위의 책, p.21.

<sup>11</sup> 여기에 관련된 연구는 정수일,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효형출판, 2002); 『문명교류사연구』(사계절, 2004)를 필두로 적지 않은 논저가 축적되었다.

문화다원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화다원주의가 한 국가 내에서의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주류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을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하려는 태도여서 문화다원주의보다 한결 진보적이다.<sup>12</sup>

정리해보면 다문화주의의 모형은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로 나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를 포함하여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문화다원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주류문화를 전제하고 거기에 통합하는 대상으로서 타문화를 바라보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보고 주류사회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13</sup>

한국 학계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근래 들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다문화주의 담론이 정치와 경제적 개념에서 비롯하여 인류학과 사회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하나의 연구이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이다. 근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 민족 간의 문화접변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생긴 대안 담론의 성격은 띤 것이다.<sup>14</sup> 그러나 한국 문화사의 연구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내용도 문화재를 양식의 분석과 변천 중심으로 파악하거나 미술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직 다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문화사의 연구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의제를 다룰 수 없었다기보다는, 한국문화에 녹아들어 있는 외국의 문화나 사상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한국학이 단문화주의의 사상적 기초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p>15</sup>

## 2. 공예사 인식과 다문화적 저항

다문화주의의 인식과 연구의 지향은 강대국과 약소국,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변방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문화적 성과를 대등하게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며, ‘차이’보다 ‘같음’을 찾아내어

<sup>12</sup> 최원오, 「구비문화와 다문화주의」, 『구비문화연구』 26집(2008.6), p. 4 참조.

<sup>13</sup> 송종호, 「단일민족 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제30호(2007), p. 106.

<sup>14</sup> 최원오, 앞의 논문, p. 2.

<sup>15</sup> 秦弘燮, 『慶州의 古蹟』(열화당, 1975); 金元龍의 『韓國美의 探求』(열화당, 1978)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미술사 연구 성과가 여기에 해당하며, 현재도 이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완성된다고 여긴다. 다문화주의 연구가 그동안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대안담론으로서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사의 영역에서 특정한 문화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양가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편성과 특수성,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들을 요약하고 그 특징을 분별해 내는 것이다. 한국학 내의 여러 분과학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미술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연구 성과를 들여다보면 이 두 속성 가운데 같음보다는 차이를,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찾기에 주력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표방하는 목표와 달리 대부분의 학술성과가 다름을 향한 일방적인 질주를 지속해온 셈이다.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학술활동이 국학으로서 국가의 이익에 직접 결부되던 시기에 인문학이 자국 문화의 상대적 독창성과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동원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근대 초기의 문화인류학이 식민지 경영을 위해 기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의 세계질서는 모든 면에서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인구의 대규모 이동과 함께 문화적 교류와 혼효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나날이 광역화되어 더 이상 배타적 민족주의의 낡은 인식틀로는 소통하기 어렵다.

미술사를 포함한 한국학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씨와 날로 삼아 직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주의를 넘어 국수적인 면모도 엿보이는 우리 학계의 오랜 관성은, 근대 학문을 수용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朝鮮學’ 또는 ‘國學’의 진흥이라는 과제에 기초하여 출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 식민지학으로서 개발된 ‘滿鮮學’에 대항하여 일어난 국내 학자들의 연구 지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을 표방하면서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해 왔던 것이다.<sup>16</sup> 근대기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국내 학계의 탈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정서가 얼마간 인정되더라도 정도의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과거로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은 물론 근대의 내셔널리즘에 의해 일국적으로 구성된 국사형 미술사를 넘어 세계사적 보편성의 시각에서 국제적 관계를 공시적으로 파악해야 마땅하다.<sup>17</sup>

공예사는 한국미술사의 분과학문으로서 위상도 그리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지형의 구조적 특성이 마이너리티의 속성을 지녔다. 시각 이미지 중심의 미술작품 사이에서 공예의 실용성

<sup>16</sup>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앞의 책, p.4.

<sup>17</sup> 여기에 관해서는 홍선표, 「국사형 미술사의 영육-조선 후기 회화의 해석과 평가 문제」, 『미술사논단』 33집(2011. 12.), pp.7-28 참조.

을 과거의 가치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또한 도자사와 고대 금속공예 등 한두 가지 분야에 연구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을뿐더러 심지어 재료에 따라 구축된 장르간의 위계구조가 형성되어 편향성과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sup>18</sup> 또한 쓰임에 내재하는 가치는 의례적 상징이나 장식요소에 비해 민족이나 지역의 범주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치를 내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속성들은 공예사의 연구환경이 미술사의 여러 영역 가운데 다문화적 상상력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한국학 분야에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다문화적 관점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미술사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적 연구 사례가 거의 없으며, 다른 장르보다 다문화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공예사 분야에서도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주의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문화이며 피지배문화의 정체성을 옹호하게 세우려는 지향을 가진 것이라면 미술사 가운데서도 특히 다면적인 성격의 공예사가, 공예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형유산 분야의 기술문화 연구가 다문화적 관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더욱 주목된다.

하나의 기물 형식을 결정하는데 개입하는 요소는 장인 외에도 수요주체의 삶과 직접 연동된 쓰임을 축으로 하여 주거환경과 동선, 신체의 스케일과 결부된 인체공학(ergonomics)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sup>19</sup> 이를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다문화적 관점으로 풀이하면, 기물 하나에 대해 민족의 문화를 축으로 하여 그 내면에 역사를 공유해온 원근 지역의 문화가 켜켜이 결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실크로드의 예에서 보듯 예상하는 반경을 훨씬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면에서는 교류 이전에 인간 본연의 지혜로 창출해낸 결과가 우연한 공통성을 띠는 시원적 보편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적용하는 시도는 기존의 견고한 인식들에 균열을 가하는 일어서서 일정한 용기가 요구된다. 이른바 다문화적 저항(Multicultural Resistance)이 필요한 것이다. 그 핵심은 그동안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에 대한 가치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권리를 인정하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주의 교육 비평가인 피터 맥라렌(Peter McLaren, 1948-)이 “우리는 지식(체계)의 다양한 전통들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문화적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up>20</sup> 문화적 다양성이 주류의 문화에 대한 구색 갖추기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주류

18 최공호, 「한국 공예사학의 장르관습과 위계구조」, 『미술사학』 21호(2007), pp. 377-383.

19 최공호, 「사진 한 컷에 담긴 근대 공예사의 원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pp. 64-87 참조.

20 Peter McLaren, “White Terror and Oppositional Agency: Towards a Critical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edited by David Theo Goldberg (Oxford: Blackwell, 1995), p. 63.

의 틀거지에 익숙한 기성의 관성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쥬디스 스티엄(Judith Stiehm)이 “다양성(diversity)은 대개 오해와 오류를 내포하는 복잡성을 동반하지만 반면에 광범위한 가능성과 반응을 이끌어내고 증가시키며 이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도 기존의 인식의 관성을 바꾸거나 확장할 필요성과 함께 그 어려움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sup>21</sup> 이처럼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과제와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만큼 현실의 단문화적 인식들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견고하다고 하겠다. 어떤 경우든 전례 없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일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관성의 층위가 오래 쌓일수록 저항의 벽이 견고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새로운 지적 체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으며, 세상과의 소통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자국중심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극단적인 문화절대주의를 넘어 다문화적 인식의 가치를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 민족 단위의 문화적 특수성을 대등하게 인정하려는 문화상대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테제이다. 기물은 이 가치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대상이라 여겨진다. 음식을 취하는 일이 인류 공통이기에 기물 역시 보편적이다. 기형은 각기 살아온 환경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기형의 근본은 쓰임에 따라 태생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드러내기에 더없이 요긴한 대상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기물이 그것을 만들고 써온 삶의 층위를 받치는 기저이자 문화적 속성을 담재한 예증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기물이 문화사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쓰임과 조형의 양면을 아우르는 것이 공예의 핵심 요건이라면, 쓰임은 수요주체의 일상과, 조형은 정서나 여망과 서로 긴밀히 연동되기 마련이다.

공예는 공간을 꾸미고 시각적 감동을 안기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그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요긴하게 쓰면서 오감을 통해 느끼는 충족감이 시각적 감각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의 삶에 밀착된 공예의 속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예사 연구의 의미도 반감된다. 따라서 공예사나 공예담론은 학술연구의 결과가 반드시 현실의 삶에 직결될 수 없다는 통념과도 얼마간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반세기가 넘는 공예사의 연구성과가 동시대 일상의 공예문화를 추동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일상을 포함한 공예 현실과 공예사 연구가 전혀 별개의 사이클로 작동되고 있다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깊은 눈으로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공예사 연구가 가진 현실과의 접점 문제는 지나

---

<sup>21</sup> Judith Stiehm, “Diversity’s Diversity,” *Multiculturalism*, edited by David Theo Goldberg (Oxford: Blackwell, 1995), p. 154.

친 학문적 엄숙주의와 공예사다운 방법론의 결여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 방법은 공예품의 여러 특질 가운데 형식의 유사성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형식의 전파경로를 밝히는데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한 형식이나 기형이 인접 문화권 내에서 단서를 찾지 못하면 그것을 한국의 고유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공예사 연구에 적용해야할 당위성은 이처럼 여러 가지다.

### Ⅲ. 공예의 문화적 다양성과 시원적 보편성

#### 1. 기물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

보편성의 가치를 공예사에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부분의 공예품에 다양한 문화 요소가 담겨 있음을 밝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교류 이전의 인류 보편적 요소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특수성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대외교섭의 결과를 그동안의 관성대로 자국의 정체성을 드높일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다양성을 통해 단문화주의의 과거로 돌리는 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계는 결국 연구 소재보다는 결과를 해석하는 평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평가의 시선에 따라 같은 결과가 단문화적 성과로, 또는 다문화적 보편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게 된다.

공예품은 향유대상의 삶에 직접 밀착하여 생성되고 변화하지만, 또한 시간의 종축과 공간의 횡축이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타문화와 복잡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형식이 변해간다. 그 내부에는 표현 형식의 문제를 포함하여 도구와 기법 등 기술의 내력이 함께 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작은 기물 하나에도 층위와 속성이 다른 다채로운 문화 유전자와 파생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예컨대 하나의 청자 기물에는 횡적으로 금속공예나 나전칠기, 도기 등 고려 당대의 물질문화와 생활문화가 기반이 되고, 그 기술의 원천인 중국 송대의 기술과 문화적 요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혼효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시공간의 축을 관통하여 오랜 기간 양국이 각기 대외관계를 통해 축적해온 외래 요소를 다듬고 다듬어 응축한 것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받아들인 문화의 역사적 층위까지 켜켜이 더해져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고 변형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에 다시 매 시대마다 수요주체의 삶과 정서까지 녹아들었다면 사유의 차원은 더 복잡해진다. 필자가 '작은 기물 한 점에 수 없이 많은 여러 문화요소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말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마치 생물 종

의 유전자 정보처럼 얽히고설켜 혼재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식의 내면은 여러 문화에서 기원한 요소가 뒤섞여 있으나 겉모습이 바뀌어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인다면, 그 너머의 진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드러난 겉모습이 인식의 한계점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문화 교류의 결과는 여러 층위에 걸쳐이 쌓이고 변형되면서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문화의 다양성이란 바로 이런 요소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연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이처럼 깊고 다채로운 층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계를 인정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결과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어떤 문화든 그 구성의 이력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고려청자를 송대의 월주요에서 비롯하였다고 단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그 내부에 중국 고대의 기형과 상징성, 주변의 술한 제국들과 실크로드를 거치는 동안 투입된 유럽 여러 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 이슬람문화 등이 총합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문헌과 시각 이미지 추적을 통해 접근하는 기존 문화 교섭사의 관점으로 는 아무래도 인상적인 판단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과거의 유물은 물론 현재의 기물에서도 다르지 않다. 특정한 기물은 온갖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교류 대상의 문화와 촘촘히 연결되어 있을뿐더러, 과거 자신의 역사에 축적된 경험과 내재된 감성과 정보까지 한 몸매 담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 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좌표를 찾고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예품에 담긴 문화요소의 구성은 결국 단문화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쌓아온 집단에서 어떤 기물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 시간의 축을 따라 반복하여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입된 새로운 문화요소가 쌓이고, 동시에 다문화적 경험도 함께 축적하여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사이클이다. 즉,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을수록 문화다양성의 요소가 더 복잡하고, 기본 쓰임에 충실한 오래된 도구일수록 문화 다양성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원리이다. 다만 쓸모에 충실한 도구가 인류 보편의 속성에 더 가까울 것이다.

지금까지 유형문화재의 연구는 대체로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축적된 연구 성과가 적지 않지만, 제출된 연구결과가 대부분 역사 유물에 내재하는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변별하여 그 갈래를 밝히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문화 교섭사나 비교문화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sup>22</sup>

## 2. 쓰임에 기초한 시원적 보편성

공예는 본디 예술보다 세간에 속하며, 그 속성은 발명품에 가깝다. '재료를 다루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공예라면, 장인의 역사적 소임은 능숙한 솜씨로 쓸모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근대미학이 과학과 창작을 나누고 예술과 기술로 구분하였지만, 공예의 근본은 과거나 현재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기술사는 도구와 기법을 발명해온 역사이며, 그것의 개량을 공예의 역사를 이끈 동력으로 보는 것도 이치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예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주된 내용과 관점은 형식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계통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의 맥락을 빼놓을 수 없으며, 그 이전에 기술의 진보를 끌어낸 동력이 어디서 비롯하는 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쓸모가 그 동인임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궁극에 쓰임의 주체인 사람이 사유의 중심이 되면 고유성을 향한 접근방법과 서술도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를 정리해보면 기술의 진보를 이끄는 동력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 가까운 쓰임이며, 쓰임은 결국 사람의 삶이 갖는 유기적 발전과 변화의 과정에서 파생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특정한 형태를 가진 공예품은 쓰임이 지속되거나 새로이 발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처음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공예품은 그것을 쓰는 수요주체의 쓰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어느 시점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기물은 문명의 변동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쓰임으로 대체되거나 소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예의 기본 속성을 고려하여 기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기형이 반드시 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유사한 형식을 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 가운데 다른 점 못지않게 인류 공통의 속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유의 장식성이나 상징적 표현을 견어내고 기형의 골격에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쓰임의 구조는 각기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 적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경직된 전과론을 넘어 인류 보편의 틀 안에서 특정한 문화현상을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민족주의나 특수성의 제한된 범주와 혼동하는 것은 엄격히 분별해야 한다. 인류가 필요에 의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만들어 쓴 기물은 영향 관계를 넘어서는 차원의 성과일 수 있는 것이다.

---

<sup>22</sup> 미술사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대부분 인접국과의 문화 교섭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다루고 있을뿐더러, 한국미술사학회에서 지난 수년간 대외 교섭사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가졌고, 그 결과를 별책으로 묶어 출간한 것은 미술사학계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는 지를 가늠케 하는 증거이다.

병을 예로 들면, 물을 담기 위해서는 흘리지 않도록 그릇의 입시울을 좁히는 것이 당연하고, 만일 물을 담은 채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면 전은 최대한 높게 하고 주구를 좁혀 가급적 흘리지 않게 하려는 지혜가 작동하게 마련이다. 병을 바닥에 내려놓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아래를 크게 확장하여 무게중심을 낮게 설정하는 것도 상식일 터이다. 물병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쓸모를 충족시키는 기술의 보편적 지혜로 창안될 수 있다. 물을 담는 병의 형태가 문화적 갈래가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같은 형식을 띠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옷이나 기물을 보관하는 상자는 특정한 민족의 고유성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쓰임의 시원적 보편성을 지닌다.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판재와 각재로 구조를 짜고, 그것을 연결하거나 결구를 위해 쇠붙이를 달아 보강하고 자물쇠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러한 가구의 기본형은 문화권과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다. 차가운 바다에서 분리하는 침상이나, 손가락을 대신하여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도 동서고금이 상통하는 형식의 보편성을 지녔다. 이것이 쓰임에 기초한 시원적 보편성이다.

연장의 경우는 기물보다 더욱 다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회전축을 이용하여 기물을 손쉽게 깎는 기구인 갈이틀(旋車)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갈이틀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쉽게 발견된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갈이틀의 예는 기원전 1100-1400년경 그리스 미케네의 무덤에서 출토된 목기에 흔적이 남아 있고, 구체적인 형태는 기원전 3세기경의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물론, 삼국시대 백제(A.D.538-660)에서도 갈이틀의 흔적이 발견된다.<sup>23</sup> 굴대를 돌려 원심력을 얻는 기본 원리는 같으나 종류와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원초적인 갈이틀은 서 있는 나무 두 그루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거나, 흰 막대의 인장력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굴대에 끈을 감아 번갈아 돌려서 회전력을 얻는 방식은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요긴하게 쓰이고 있으며, 동서고금의 형식이 수동에서 기계로 동력원만 바뀌었을 뿐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이 가운데는 문화전파의 수혜를 받은 예가 없지는 않겠으나 단순한 원리로 미루어 굳이 도움이 필요 없는 시원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되는 활의 형식도 기물 형식의 시원적 보편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수렵채취를 위해 손쉬운 사냥무기로서 일찍이 창안된 활은 특정 문화권의 고유한 발명품

<sup>23</sup> 최공호, 「갈이틀의 명칭과 磨造匠의 소임」, 『미술사논단』 43호(2016.12), pp.66-67.

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명이 일찍 발달한 지역이든 지체된 지역이든 나름의 방식대로 만들어 써 온 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료와 성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형식의 기본 원리가 다른 것은 아니다. 탄력을 가진 활대와 그것을 극대화 하여 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시위, 그리고 화살로 구성되는 활의 기본구조는 어디서나 공통적이다.

식기는 동아시아와 서양이 언뜻 보아 큰 차이를 보인다.鉢이나 碗의 형태 등 기벽이 높고 깊은 그릇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에 비해 서양의 그릇은 접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음식 문화의 향유 관습과 그릇의 상관관계가 무척 긴밀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기벽이 높은 그릇이 없지 않고, 동아시아에도 접시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발과 완의 형태도 동아시아 3국이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공통점 또한 적지 않다. 기본적인 발의 형식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이 거의 같다. 이처럼 동아시아와 서양의 기물이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점을 발견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것이다.

같은 유물을 두고 두 나라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도다완(井戸茶碗)으로 불리는 찻그릇의 문화 소유권 문제가 상징하는 바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피의 끌림으로 인식하는 단문화주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도다완은 본디 조선후기의 어느 지방 가마에서 민간수요를 위해 대량으로 구워 장내기로 팔던 서민의 식기였을 뿐이다. 막사발을 처음 만들어 쓴 사람은 조선인이었을 지라도 이를 찻잔으로 재활용한 것은 일본인이었다. 조선시대에 말차를 마시는 취향은 찾아보기 어려우니, 엄밀히 말하여 이 찻잔은 말차문화를 향유한 일본인의 창안품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국내의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해외에서 성가가 높은 조선 막사발을 소재로 축제를 벌이고, 서로 경쟁하듯 재현품을 만드는데 골몰하는 현실은 씁쓸하다. 문화적 혈연에 얽매어 균형감을 상실하면, '나은 정 기른 정'을 다투듯 억지를 부리게 되는 셈이다. 역사 인식의 균형과 보편적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정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형식의 유사성을 일단 전파론의 틀에 넣어 해석하려는 관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면을 가진 문화적 결과물에 대해 특수성의 외눈으로만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구의 소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일이다. 이처럼 인류 보편의 기술문화의 성과를 두루 찾아내어 그 기초를 확인하고, 그 연후에 각기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가 실천될 때라야 비로소 균형 잡힌 연구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 IV. 맺음말 – 다문화적 공예 인식의 지향

공예품은 향유대상의 삶에 깊게 밀착하여 생성되고, 시공간과 역사적 역학구조 속에서 원근의 문화와 복잡다기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변화한다. 작은 기물 하나에 층위와 속성이 다른 다채로운 문화 유전자와 파생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은, 기물 하나가 인간의 삶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깨우침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한층 자명해진 셈이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공예사 연구가 공예의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속성에 걸맞게 전방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서 시각 이미지를 콘텍스트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점의 소반을 수요주체의 삶과 연동하여 스케일과 공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도도 해보았다. 기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체가 작가보다 수요환경 및 인간의 삶의 조건과 더욱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접근이 공예를 조형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관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면, 다문화주의의 공예 인식은 시야가 한결 넓어지는 느낌을 갖는다. 단순한 연구관점의 문제를 넘어 세계관의 확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에 기반하여 한국적 정체성 찾기에 집중된 한국학의 연구 환경이 다문화사회로 바뀐 지 오래인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경계가 사라진 열린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자국의 특수성에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보편성도 함께 보면서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예사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부분의 공예품에는 유전자 정보와 같은 다채로운 문화 요소가 담겨 있음을 밝히는 일과, 문화 교류 이전의 인류 보편적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교섭의 결과를 자국의 정체성으로 제한한다면, 결국 다문화주의의 과거로 회기할 개연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이는 결과를 해석하는 평가의 문제로서, 시선에 따라 같은 결과가 단문화적 특수성 또는 다문화적 보편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다문화주의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융합이다. 동화의 개념이 이민족의 문화를 녹여 주류 문화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용광로(melting pot)에 비유된다면, 다문화주의는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샐러드나 조각들이 모여 형상을 이루는 모자이크에 가깝다고 본다.<sup>24</sup> 각기의 고유

---

<sup>24</sup> 최원오, 앞의 논문, p.5.

한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융합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문화주의가 학술의 영역을 넘어 현실의 의제로 적극 활용될 개연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시대를 거스를 힘을 가진 좋은 기물의 조건은 단문화적 특수성이 강한 것보다 다문화적이며 개방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이라야 더 유효하며, 시원적 보편성을 띤 기물도 시간의 흐름을 이겨낼 힘이 작동한다고 믿는다.

정리해 보면, 입체적이고 전방위적 관점에서 대상을 보며, 한계를 긋지 않고 모든 시도를 아우르는 다문화주의의 사유의 유연성이 결국 창의적 상상력을 발현하는 원천이다. 또, 공예의 중요한 한쪽인 보편적 속성을 찾아내어 균형 잡힌 서술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전통담론도 혈연에 기초한 단문화주의의 인식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근대가 발명한 또 하나의 권력’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sup>25</sup> 단점의 성찰 없이는 역사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피의 끌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역사, 혈연에 기초한 단문화주의는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는 일부 기여할지 모르나,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다문화주의 인식은 사람의 본디 가치를 대등하게 보고 우열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며, 인류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선하다. 좌우 이념과 체제, 경제적 이해에 따라 편을 가르고 각기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성과 고유성을 씨와 날로 삼아 직조한 균형 잡힌 새로운 역사를 서술해야 옳으며, 이때 특수성에 매몰되어온 지금까지의 서술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해가야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으로서 정합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 참고해야할 연구 관점이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옹골케 받아들이고 너른 품으로 아우르는 다문화적 관점이다. 나아가 다문화적 상상력의 한 자락이 바로 필자가 생각하는 시원적 보편성의 문제이다. 특수성은 그 속성이 분절과 대립,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나 보편성은 서로의 같은 점을 확인하고 동질감을 복원하는 장점을 지닌다. 모든 민족이 공유한 기물의 거추장스런 장식들을 걷어내고 내면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비로소 만나게 될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형태가 갖는 쓰임의 원리와 보편성의 가치는 기대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대상이 바로 기물이며, 공예사 연구에서 굳이 이 방법론에 주목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다문화주의 관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기는

---

<sup>25</sup> 임형택, 「한국 근대가 세운 전통 표상-왕인과 장보고」,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전통문화연구소, 2010), pp. 18-41 참조.

어렵다. 다만 기존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화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서 충분히 그 몫을 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그동안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해야한다는 깨우침과, 균형 잡힌 인식을 향해 한층 깊은 눈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 것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되었다. 향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문화주의의 열린 눈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깊게 분석하고 넓게 종합하는 논문에 도전해 보고 싶다.

**\*주제어(key words)**\_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적 저항(Multicultural Resistance),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 시원적 보편성(Originary Universality), 내셔널리즘(Nationalism)

■ 투고일 2017년 7월 10일 | 심사개시일 2017년 7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31일 ■

## 참고문헌

### 1. 한국어 문헌

- 강정원, 「다문화시대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6집, 2008.6.
- 金元龍, 『韓國美의 探求』, 열화당, 1978.
- 김용규, 『혼종문화론』, 소명출판사, 2014.
-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제 26집, 2008.6.
- 박경하 외, 『한국 역사 속의 문화적 다양성』, 경진출판, 2016.
- 송종호, 「단일민족 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제30호, 2007.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007.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 임형택, 「한국 근대가 세운 전통 표상-왕인과 장보고」,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전통문화연구소, 2010.
- 정수일,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 정수일, 『문명교류사연구』, 사계절, 2004.
- 秦弘燮, 『慶州의 古蹟』, 열화당, 1975.
- 최공호, 「한국 공예사학의 장르관습과 위계구조」, 『미술사학』 21호, 2007.
- \_\_\_\_\_, 「사진 한 컷에 담긴 근대 공예사의 원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7, 2008.
- \_\_\_\_\_, 「소백색 한복의 정체성과 근대의 백색담론」,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전통문화연구소, 2010.
- \_\_\_\_\_, 「같이들의 명칭과 磨造匠의 소임」, 『미술사논단』 43호, 2016.12.
-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구비문학연구』 26집, 2008.6.
- 홍선표, 「국사형 미술사의 영육-조선 후기 회화의 해석과 평가 문제」, 『미술사논단』 33집, 2011.12.

### 2. 서양어 문헌

- Caws, Peter. "Identity: Cultural, Transcultural, and Multicultural." *Multiculturalism*, edited by David Theo Goldberg, Oxford: Blackwell, 1995.
- McLaren, Peter. "White Terror and Oppositional Agency: Towards a Critical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edited by David Theo Goldberg, Oxford: Blackwell, 1995.
- Stiehm, Judith. "Diversity's Diversity." *Multiculturalism*, edited by David Theo Goldberg, Oxford: Blackwell, 1995.

Turner, Terence. "Anthropology and Multiculturalism: What Is Anthropology that Multiculturalists Should Be Mindful of It?", *Multiculturalism*, Ed. David Theo Goldberg. Blackwell, 1995.

## 국문초록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본디 근대기의 국경 변동과 빈번해진 인구 이동에 따라 생긴 정책용어에서 비롯하였다. 근대 이후의 국제관계가 여러 형태의 문화 교섭과 혼효, 디아스포라를 초래하였고, 더불어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이 사회 통합을 위한 시급한 의제로 떠오른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논점은, 중심과 주변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것이 약자의 문화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의 단문화적(monoculturalism) 사유의 틀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성과 차이를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이상 그 궁극은 분열과 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새로운 현상을 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모든 문화적 성취를 대등하게 놓고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문화의 참다운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선의 실현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된다. 다문화주의 연구방법론에서 가장 주목할 핵심은,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여 실제적 진실에 한 발 다가가는 유효한 대안인 동시에 ‘차이’보다 ‘같음’을 드러내어 인류보편의 가치 확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다.

공예사의 다문화적 접근은, 그동안의 견고한 단문화적 관성과 연구방법의 결핍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 긴요하다고 본다. 공예는 우리 삶의 여러 층위 가운데 매우 넓은 범주의 문화 전형을 구성한다. 모든 인종에게 제각기의 방식으로 존재해온 터라 대표적인 시공간의 보편적 속성을 지닌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기물 형식에는 다채로운 외래문화의 요소와 문명교류 이전의 인류 보편적 속성이 함께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보편적 가치의 지향과 수렴되는 점이 흥미롭다.

필자는 다문화주의의 복잡한 이론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차이보다 같음의 가치를 확장하는데 주력하는 연구의 지향에 더 관심이 있다. 이를 공예사의 기형 분석에 접목하면 인류 보편의 지혜에 기초한 시원적 보편성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시원적 보편성은 문화교섭 이전의 본능적 지혜의 발현이다.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넘어 민족과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적 성취 내부에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편적 특질을 찾아내는 작업은, 자국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 차이와 대립의 강화에 동원되어온 한계를 넘어 인류보편의 가치를 향한 시선 그 자체로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예사에 적용할 다문화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공예품의 역사적 층위에 다문화적 요소가 켜켜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교류 이전의 인류 보편적 지혜의 소산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특수성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대외교섭의 결과를 그동안의 관성대로 자국의 정체성을 드높일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다양성을 통해 단문화주의의 과거로 돌리는 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공예품에 담긴 문화요소의 구성은 결국 단문화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쌓아온 집단에서 어떤 기물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 시간의 축을 따라 반복하여 재현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새로운 문화요소가 켜켜이 축적되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사이클이다.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문화적 요소가 더 강하고, 기본 쓰임에 충실한 오래된 도구일수록 시원적 보편성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요긴한 대상이 바로 일상의 기물인 셈이다.

**Abstract**

## **Examination of Methodology for History of Craft and Multicultural Imagination**

**Choi Gong-ho\***

Multiculturalism originated from a policy term generated with change of borders and frequent population movements in modern era. It also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caused various types of cultural negotiations, mix and diaspora in modern time and that cultural identities of ethnic minorities have emerged as an urgent agenda for social integration. The point of multiculturalism, therefore, starts from recognizing that to divide and rank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is a factor which interrupts proper evaluation on the weak's culture.

Considering reality of Korea that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quite a while ago, concentrating on revealing distinctiveness and difference would be very likely to end up with division and confrontation. Thus, it is a meaningful first step for identifying true values of culture and further, for realizing human's common good to put every cultural achievement on equal terms and to find universal values through multicultural imagination. The core that research methodology of multiculturalism should focus on the most is efforts to make contributions to expanding universal values by revealing 'sameness' rather than 'difference' along with an alternative to overcome unfair discrimination.

Multicultural approach to history of craft is more important to overcome inertia of the firm, monocultural awareness and problems in research methods. Among various levels of

---

\*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our lives, crafting consists of cultural model with the broadest category. As it has been there to every ethnic group in its own way, it is also relevant with having representative universal attributes of time and space. Diverse elements from foreign culture and universal attributes before exchange of civilization are condensed in an object's form.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two converge on orientation towards universal values.

I am more interested in orientation towards multiculturalism that focuses on expanding values of sameness rather than difference without being restrained by complex theoretical system of multiculturalism. Grafting this onto object's structure analysis in history of craft, we come to see an issue of originary universality based on universal wisdom. Originary universality is manifestation of instinctive wisdom prior to cultural negotiations. It is thought that cultural achievements that transcend ethnic groups and regions beyond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center and periphery must have universal elements basically within. Work to find universal features has a certain significance in itself as an attempt to overcome limitations of monoculturalism mobilized for reinforcing difference and confrontation due to obsession with one's own country's self-interest and to seek universal values beyond borders.

There are two multicultural perspectives that can be applied to history of craft. The one is to clarify that different cultural elements are in most of craftwork and the other is to find universal elements before cultural exchange. These two share a goal in that they both aim for universal values rather than distinctiveness. However, if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are utilized for a purpose of increasing one's own country's identity as done till now, careful attention is needed because it goes rather back to the past of monoculturalism through cultural divers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tructure of cultural elements put in craftwork is rarely monocultural. When a group with certain historical experience accumulated starts to make and uses an object, new cultural elements are piled up from a process of repeated reproduction over time and at the same time, multicultural experiences are accumulated and inherited to the next generation, which makes a cycle. More opportunities to contact with the outside over time lead to stronger multicultural elements and an old tool faithful to its original use tends to approach originary universality. Therefore, one of the most powerful instruments stimulating multicultural imagination is everyday objects.